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은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 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외로운 사람, 갇힌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 할까요?

첫번째는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에 간혀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내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뻐한다면 아직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품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받은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나아가 받은 복과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문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YONSEI UNIVERSITY CHURCH

예배순서

예배초청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다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 589장)

다같이

-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진동 하도다
-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보내 주소서
- 3.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 4. 거뒀던 모든 알곡 천국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

말은이

은혜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
소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며 화목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68편 4-6절

- 4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 5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 6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 내서
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설교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하나님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 559장)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초간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간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